

# 광주·전남 코로나 두 자릿수 확진...전국 1200명대

### 여수 사우나발 11명...추가 우려 수도권 감염 80% 이상 이동자제 핵심방역수칙 위반 바로 영업정지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방역당국이 초비상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7일 새벽 0시 까지 1000명에 가까운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전국에 걸친 신규 확진자는 1200명대로 치솟았다. 광주와 전남에서도 수일 만에 두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나온 데다, 휴가·방학철을 맞아 수도권 확산세가 지역으로 번질까 봐 시도 방역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남도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전국에 걸쳐 신규 확진자 1212명이 나왔다. 누적 확진자는 16만2753명이 됐다. 이는 전남(746명)보다 466명 늘어난 것이다. 신규 확진자 1212명은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해 연말 '3차 대유행'의 정점(12월 25일, 1240명)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300~700명대의 폭넓은 정체 구간을 오르내렸으나 이날 들어 800명대로 치솟더니 결국 1000명 선도 넘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 감염경로는 지역 발생 1168명, 해외유입 44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577명, 경기 357명, 인천 56명 등 수도권이 990명(84.8%)이다. 수도권 지역 발생 확진자 수가 900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나온 이후 처음이다. 수도권 확진자는 지난달 30일 이후 8일째 전체 지역 발생 확진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비수도권은 부산 33명, 대전 29명, 제주 18명, 충남 16명, 경남 15명, 대구·강원 각 12명, 광주·전남 각 10명, 전북 8명, 세종·충북 각 5명, 경북 4명, 울산 1명 등 총 178명(15.2%)이다.

광주와 전남에서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각각 10일, 12일 만이다.



7일 광주 북구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광주시 자원봉사센터와 북구자원봉사센터가 준비한 팝업 오케스트라연주회가 열렸다. 보건소 직원들과 의료진, 봉사자들이 음악을 들으며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에서는 특히 여수 선원동 모 사우나를 매개로 연일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사우나 이용객 8명 등 모두 11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코로나 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이가 5명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되면서 방역당국도 다소 놀란 분위기다. 1차 접종만으로 감염을 상당부분 억제한다는 것을 보여줬던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휴가철, 방학철을 맞아 수도권 방문 등으로 코로나 19가 지역으로 번지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크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1차로 먼저 '경고' 처분을 하게 돼 있지만,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그간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시행됐던 집합금지 조치가 벌칙 조항에 추가된 것이다. 이에 따라 8일부터는 이용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핵심적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곧바로 영업 중단 조치가 내려진다. 한편 오는 8일부터는 코로나 19 중대 방역수칙을 단 한 차례라도 위반한 시설 또는 업체에 대해서는 곧바로 열흘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방문객이나 손님이 방역수칙을 어겼을 경우 업주가 적극적으로 이를 말했다면 면책된다. 한편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1차로 먼저 '경고' 처분을 하게 돼 있지만,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그간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시행됐던 집합금지 조치가 벌칙 조항에 추가된 것이다. 이에 따라 8일부터는 이용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핵심적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곧바로 영업 중단 조치가 내려진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전남 어촌 매력 전국에 알린다

### 전남도·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금호익스프레스 협약

전남도는 7일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와 함께 전남 어촌의 관광자원, 체험프로그램, 다양한 수산물 등을 전국 각지에 알리기 위해 금호익스프레스와 상생협약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장흥 이희진·영광 윤희·고흥 우두·장흥 장환·진도 모사·해남 동현·해남 임하·강진 사초 등 8개의 우수어촌계장 등이 함께 했다.

협약에 따라 금호익스프레스는 전남도와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어촌 홍보물과 영상을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로 유행하는 고속버스에 배포해 상영한다. 또 전남 어촌의 수산물 가공 상품을 광주 유스퀘어 등에서 판매하는 행사와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올해 역량강화사업 대상 어촌으로 선정된 장흥 이희진 등 8개 어촌의 정보가 담긴 홍보물을 7~8월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전남도와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이들 어

촌 이외에 다른 어촌이 지원 요청을 하면 예산 범위에서 반영하는 등 전남 어촌이 전국 각지에 알려지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 이번 협약을 전남 어촌과 도시 소비자의 직거래를 위해 전국 최초로 만든 어촌 수산물 직거래망 바이씨(buysea.co.kr)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기회로 삼기로 했다.

이계영 대표는 "전남도,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등과 함께 매력 넘치는 전남 어촌을 홍보할 소중한 기회를 얻어 감사하다"며 "전남 어촌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충남 전남도 섬해양정책과장은 "전국 각지로 유행하는 고속버스를 통해 매력적인 전남 어촌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게 돼 관광객 증가, 매출 증대 등을 기대한다"며 "외지 관광객이 찾고 즐기는 전남 어촌을 만들기 위해 기반 및 편의시설 투자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와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전남 우수 어촌이 7일 오후 광주 유스퀘어에서 금호익스프레스와 상생협약을 맺고 앞으로 전남어촌 홍보, 판매 이벤트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함께 하기로 했다.

## 한국에너지공대, 독일 프라운호퍼 공동 수소연구센터 설립



### 유럽 최대 연구기관...내년 6월 목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가 독일 연구조합과 손잡고 내년 6월 공동 수소연구센터를 설립한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최근 세계적인 연구기관인 독일 프라운호퍼(Fraunhofer) 연구조합과 그린 수소에너지 공동 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협력의향서를 교환했다고 7일 밝혔다.

프라운호퍼는 수소 분야 연구개발(R&D)을 선도하는 유럽 최대 응용과학 연구조합이다. 독일 전

역에 72개의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두 기관은 오는 2022년 6월까지 한국에너지공대에 공동 수소연구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수소 공동연구소 설립으로 프라운호퍼와 기술제휴 등 수소 전주기 연구와 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주기 그린 수소 에너지 연구는 국내 기술 인력 및 산업 육성이 시급한 저장과 운송 분야 중 하나인 수소 액화, 수소 합성(암모니아-메탄올), 수소 고체, 수전해 분야의 핵심 기술이다. 공동 연구센터에는 수소 에너지 연구를 위한 소규모 연구설비인 랩-스케일(Lab-Scale) 설비가 구축되고 상용화 검증을 위한 파일럿 스케일

(Pilot-Scale) 플랜트도 갖춰진다. 수소에너지 연구는 에너지 인공지능(AI), 에너지 신소재, 차세대 그리드, 환경·기후기술 등 한국 에너지공대의 5대 에너지의 중점 연구 분야 중 하나다. 연구개발 결과는 신안에 설치될 해상풍력과 연계해 '그린 수소' 산업 전주기 인프라와 생태계 구축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대학 측은 기대했다. 윤의준 한국에너지공대 총장은 "공동 연구센터 유치를 프라운호퍼 측과 그린 수소 생산 및 저장, 운송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초등교육시간 확대...고령층 고용·임금체계 사회적 논의

정부가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원하는 시간까지 초등교육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고령자 고용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와 영향과 대응 방향'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여성에게 출산·육아 부담이 집중되면서 경력단절과 저출산 현상으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초중생 자녀 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인구 고령화에 발맞춰 고령층 고용 활성화 방안에도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다만 일각에서 거론되는 정년 연장 논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

**투자 하실분 5억이상**

**경기/수도권 물건 급매물/경매 특수물건 투자금 법적으로 보장 월2부 이상 수익 가능**

**20년노하우. 010-3605-5000**

**꼭! 받아야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9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이닝샷**

광고문의 (062) 227-9600    신문구독 (062) 220-0551    예향구독 (062) 220-0550

**분할 합병 공고**  
(채권자 이익 및 주권보호를 공고)

베스트리뷰(주) 주식회사(이하 "갑")와 광동이더블유에스 주식회사(이하 "을")는 2021년 07월 05일 개최된 각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정기감사인부분을 분할하여 이더블유에스 주식회사를 "갑"과 분할합병하고, "갑"과 "을"은 존속하고 "갑"의 분할된 정기감사의 권리의무를 "을"이 승계하며 상법 제530조의 9 제3항의 권의 정지를 받아 을 자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나, 위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이의가 없으면 분할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각 회사의 주주들은 해당 회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21년 07월 08일

"갑" 베스트리뷰(주) 주식회사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 3190, 1층 제104호 (하남양동)  
대표이사 한정희

"을" 광동이더블유에스 주식회사  
충청남도 당진시 백암로 75-4(재운동)  
대표이사 나태민

**산행안내**

7월11일(일)

▲광주K산악회 7월11일(일) 경기도가평, 명지산1252m, 연인산&용추계곡, 명지계곡 산행, 염주체육관 06:00, 동아병원 06:05, 롯데백화점 06:10, 광주역 06:15, 문예후문 06:25, 비엔주차장 06:30 ※ 다음카페 광주K산악회 ☎ 010 7794 6920